

노인이 경험하는 삶의 원동력 의미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한숙정* · 강경아** · 임영숙***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2017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였고, 2019년에는 14.9%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연령별로 65~69세 연령층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80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증가하여 고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9). 생활의 편의성을 도와주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삶의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으나,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길어진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Choi, 2012). 일반적으로 노년기란 65세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말한다(Choi, 2012). 노년기는 신체적인 변화와 은퇴 등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인 불안정감, 사회 또는 가정에서 역할 변화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 축적, 고독과 소외 및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신체적, 심리적,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

다(Rhee & Lee, 2004). 그러나 노년기는 가치관과 자아개념에 의해 형성되는 한 개인이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더욱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기간이기도 하다(Choi, 2012). Bury와 Holme (1991)는 개인을 둘러싼 삶의 객관적인 상황은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특히 생의 마지막 단계를 마무리하는 노년기는 삶의 의미가 다른 세대들보다 행복이나 가난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개인이 살아오면서 받아들이고 경험한 수많은 상황들은 노년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노년기를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Park & Park, 2013).

‘원동력(原動力)’이란 사람이나 사물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힘, 사물의 활동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는 힘(Korean Basic Dictionary, 2019)을 말하며, 노년의 삶은 지금까지의 수많은 삶의 도전과 역경들을 이겨내고 견디어냈다는 의미에서 성취이자 자아통합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Han, Lee, & Kim, 2004). 원동력은 또한 노인들이 그들의 살아온 삶 속에서 어려움에 대처하고 그것을 극복한 방식으로 시간, 질병으로 인한 경험의 변화나 인간 발달단계, 문화적 배경, 개인의 생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https://orcid.org/0000-0002-8824-2199>)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https://orcid.org/0000-0003-2582-3436>)

*** 삼육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교신저자 E-mail: yslim2347@gmail.com) (<https://orcid.org/0000-0002-0065-5328>)

• Received: 1 January 2019 • Revised: 18 April 2019 • Accepted: 22 April 2019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Lim, YoungSook

815, Hwarang-ro, Nowon-gu, Seoul, 01795

Tel: 82-2-3399-1593 Fax: 82-2-3399-1594 E-mail: yslim2347@gmail.com

활상과 연관되어 있는 주관적인 현상을 경험하고 지탱해온 힘이다(Ryu, 2011; Guttman, 2016). 노인은 오랜 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건을 경험했으며, 성공과 실패를 수없이 겪고 사고와 질병도 통과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노인들이 살아온 삶 속에서 어려움에 대처하고 그것을 극복한 방식이다(Guttman, 2016).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파킨슨병 환자의 적극적인 삶에 대한 이해(Park, 2005) 한국 백세 노인들의 “오래 삶”의 의미에 대한 질적연구(Han, Lee, & Kim, 2004), 장수노인의 삶의 체험(Ryu, 2011) 등 백세시대를 맞이하여 질병과 더불어 살아가는 노년의 삶의 자세와 그들이 현재의 삶을 대하는 방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노인들이 여생 동안 노화나 질병 등 현실적인 한계를 이겨내고 남은 생을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절대적 요소이며, 노인들의 삶 전체의 경험을 통하여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원동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그들이 직면했던 역경과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현재에 이르러 노년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삶의 근원적인 힘이 되어준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들이 보다 질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체험 중심적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노인의 삶 속에 내재된 힘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보다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간호학적 돌봄의 방향 정립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상학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 경험의 기술이며 총체적으로 대상자의 실체에 접근하는 것으로 현상학적 접근은 간호의 연구방향과 일치하며 통합된 인간 경험에 대한 간호개념을 파악하는데 가치가 있다(Parse, Coyne, & Smith (1985). 이에 본 연구는 인간 현상이 가진 본질적이며 본편적인 측면을 밝히하고자 Van Manen (1997)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노인들의 삶을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그들의 남은 삶을 이끌어갈 힘이 되어줄 원동력 체험을 노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들의 체험에 내재되어있는 원동력의 의미와 본질을 알아보려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이 체험한 삶의 원동력의 의미와 체험의 사실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노인이 체험한 원동력의 본질적 의미란 무엇인가?”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노인들의 삶의 원동력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그 본질과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Van Manen (1997)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방법으로 접근한 질적연구이다.

2. 체험의 본질을 향한 집중

1) 현상에 대한 지향

제 1 연구자는 젊어서 혼자가 되었고, 오래된 관절염으로 허리와 다리의 증상 악화를 경험하면서도 하루도 운동을 거르지 않으시며, 밤낮으로 농사와 집안일, 나이 든 아들 돌봄까지 아직은 본인의 일처럼 해내시는 시어머님의 일상을 20년간 접하였다. 또한 주변 몇 분 노인들의 유사한 일상을 목도하고 개별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 병든 몸의 한계를 넘어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모습 속에 어떤 힘이 노년의 삶을 지탱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노인이 경험하는 삶의 원동력 의미와 관련된 생활세계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현상학적 접근을 시도하게 되었다.

2) 현상학적 질문 형성

현상학적 연구란 “정말로” 어떠한가에 대한 현상학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Shin, 2000). 본 연구의 현상학적 질문은 “노인이 체험한 원동력의 본질적 의미란 무엇인가?”이다.

3) 연구자의 준비

3명의 연구자 중 한 명은 10년 이상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본인의 경험을 통해 본 연구주제에 대한 요구를

갖게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질적 연구 수행 경험이 풍부하여 현상학적 반성과 살아 있는 경험의 의미 파악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나머지 1인은 연구 현상과 관련된 민감성을 확보하고자 대학원 수강으로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습득하였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서적을 탐독하면서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판단력을 갖추고자 노력하였다. 3명의 연구자 모두 결혼 후 시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으며 현재도 같이 살지는 않으나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노인들의 삶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

4) 연구자의 가정과 선 이해

연구 현상의 본질과 의미를 제대로 밝히고자 탐구 주체의 판단중지와 관련되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가정과 선 이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자는 노인들이 살아온 평범한 일상의 삶은 특별할 것이 없다는 사회적 인식에 대해 알고 있다. 노인들은 부모로서 가족에 대한 심적, 신체적 부담이 가장 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노인들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힘이 가장 크고, 가장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힘을 내면서 살아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이 체험한 삶의 원동력 의미 경험으로 인하여 자신의 지나온 삶과 여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들의 여생을 위해 간호사로서 어떤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3. 실존적 탐구

1) 어원 추적 및 관용어구

원동력은 사람이나 사물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힘으로 물체나 기계의 운동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힘. 열·수력·풍력·화력 따위를 의미한다(Korean Basic Dictionary, 2019).

2) 문학과 예술로부터의 경험적 묘사

본 연구자는 노인의 삶의 원동력에 대한 대리 통찰을 깊게 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체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도서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Choi, 2004)와 우리 시대

아버지의 정신세계가 반영된 영화 '국제시장'과 '비밥바롤라', 그리고 삶을 지탱하는 요인 중 하나인 친구에 관한 양희은의 노래 가사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Choi, 2004)는 최인호가 어머니를 생각하며 진솔하게 써 내려간 자서전적 소설로 일찍이 어려서 홀로된 어머니의 여섯 자녀에 대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어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을 담고 있다. 영화 '국제시장'은 6. 25전쟁 중에 전쟁 통에 헤어진 아버지를 대신해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덕수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군세계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Figure 1). 영화 '비밥바롤라'는 평균 70세 노인들의 좌충우돌기이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네 아버지가 가족을 떠나 함께 생활하며 가족을 위해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각자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해 나가면서 정겨운 노인들의 사랑과 우정, 살만한 가치가 있는 노년의 삶을 보여준다(Figure 2). 양희은의 노래 가사 '인생의 선물'에는 나이 들어가면서 진정성 있는 관계를 나누는 친구의 존재를 인생의 선물로 표현하고 있다.



Figure 1. International market



Figure 2. Bebobbarrura

이상의 어원 추적과 문학과 예술로부터의 경험적 묘

사에서 고찰한 것을 기본으로 삶의 원동력은 노인이 지금까지의 삶을 어려움을 견디고, 버티며, 살아내게 한 근원적인 힘을 의미하며 여생동안 자신과 가족과 사회를 지켜나가는 바탕이 되는 힘으로 정의할 수 있다.

4. 연구 참여자 및 윤리적 고려

노인 삶의 원동력의 의미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얻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8명을 편의 표집 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 이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노인 중, 언어소통이 가능하며, 의사에게 인지 기능장애를 진단받지 않고, 정신과 기왕력이나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자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전 S 대학교 기관윤리 위원회 심의(SYUIRB-2017024HR)를 거쳤다. 심층면담 전 면담 내용 녹음 및 수집된 자료의 이용목적 및 정보 보호, 참여자의 자발적 의사로 연구 참여 결정, 연구참여 철회가 언제든지 가능함을 설명 후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면담 종료 시 모든 참여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60세에서 81세이였으며 성별은 여자 18명, 남자 1명이었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양하였고, 4명의 참여자는 현재 배우자와 사별하여 독거노인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14명 모두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17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19명이 1~4명의 자녀가 있었고, 14명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5.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로 노원구 보건소, 경로당, 개신교회, 암 환자 자원봉사 모임에서 대상자를 소개받았으며,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나 참여자의 집에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에 앞서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건강 상태 및 가족관계 질문 등을 통해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심층 면담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게 한 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고, 참여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였으며, 참여자의 답변 내용에 관한 추가적인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참여자에게 건넨 추가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살아오게 한 힘이 어머니라고 하셨는데 어머니와의 어떤 경험이 삶을 살아오게 한 힘이 되었나요?”. 면담 소요시간은 최소 1시간, 최대 2시간 정도였으며 평균 1시간 20분이 소요되었다. 면담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녹취된 자료를 참여자의 언어로 필사한 후 반복해서 읽으면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통화 혹은 재방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6.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Van Manen (1997)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직후 녹음을 필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읽고 자료의 전반적인 느낌을 이해한 이후, 의미가 있는 문장에 밑줄을 긋고 그 의미 단위를 상세히 세분하고 범주화하였다. 범주화된 의미나 주제로 구분된 의미 단위에 가장 적합한 함축적인 단어를 주제로 표현하였다. 의미 혹은 주제 단위로 묶여진 주제들을 깊이 성찰하고 그 의미를 찾아 참여자의 생활세계 체험 구조를 잘 펼쳐 보일 수 있는 실존 체인 체험된 몸, 체험된 공간, 체험된 시간, 체험된 타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반성적 탐구, 분류 및 통합을 통해 최종 주제에 대해 개념화하였다. 또한 삶의 원동력과 관련된 용어나 어원, 문학 및 예술작품 등을 참여자의 경험 진술과 비교, 분석, 검토 후 전체적인 현상을 기술하는데 참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연구 참여자들과 재확인 절차를 진행하였고, 참여자의 진술에서 도출한 주제들을 해석학적 현상학적 스토리로 재기술하였다.

7. 연구결과의 질 확보

분석 자료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Guba와 Lincoln (1992)의 질적연구 평가 기준인 신빙성, 전용 가능성, 의존성, 확증성의 측면에서 연구의 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신빙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들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현재도 노년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삶의 경험을 잘 표현해 줄 참여자를 선정하고자 노력하였고, 연구의 목적을 충

분히 설명한 후 참여자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참여자로 인한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참여자들과의 재접촉으로 필사된 자료, 도출된 주제 및 최종적으로 분석된 결과가 참여자들의 경험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을 받았다. 또한 분석과 해석의 신뢰성, 보편성, 타당성 확인을 위해 연구자 간 검토를 거쳤으며, 전용 가능성을 확립하고자 참여자를 목적적 표출법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포화상태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결과가 풍부해지도록 연구 현상 기술에 노력을 기울였다. 의존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 기간 동안 모든 의사결정과 진행과정을 자세히 기술함으로 다른 연구자의 이해와 분석 의견이 합의점에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확증성 확보는 연구과정 동안 중립성을 유지하고 편견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연구자는 연구 시작 전에 선 이해와 가정의 기술로 판단중지를 하였고, 연구의 중립적 입장을 갖도록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 자신이 가진 편견과 선입견이 무엇인지를 계속 메모하고 내용들을 상호 비교하면서 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참여자의 견해와 경험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간호학자 2인에게 분석 기법, 주제의 범주화 등이 수집된 자료에 충실하며 논리적인 도출이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III. 연구 결과

1. 노인의 삶의 원동력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참여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에서 노인들의 삶의 원동력 체험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분석 과정을 통하여 22개의 주제 및 14개의 본질적인 주제 확인 후 현상학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삶의 원동력과 관련된 어구와 문항, 예술작품을 분석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노인 삶의 원동력 의미 체험과 비교함으로써 반성을 하였다.

1) 과거로부터 이어진 삶의 끈

참여자들의 삶의 원동력에 대한 인식은 과거로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연결되어 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내 속에 재재되어 있는 힘은 이전 세대가 주신 사랑과 물려준 신앙적 유산,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어떻게든 어려운 시절을 견디어내겠다는 삶에 대한 몸부림과 이겨내고자 하는 열망이었다.

● 어머니의 사랑

부모는 자녀를 위해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하는 삶을 살아내었는데 특히 강한 교육열이 핵심 특성이었다. 모성애는 이 세대 여성 노인들이 관계적 삶 속에서 지치지 않고 살아내게 한 원동력의 중심이 되었고 자신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가장 우선적인 요소이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부추로 전을 만들어 시장에 가서 파시고.. 우리 6남매를 가르치셨어요.. 내가 굶더라도 자식은 가르치시겠다는 일념으로 우리를 키우셨어요. 엄마가 시골에서 가져올 돈이 없었니까 행상을하고...엄마의 교육열 때문에 자식들이... 제 삶의 원동력은 우리 엄마예요. (참여자 3).

● 가족의 영적 유산

참여자들에게 신앙은 개인적, 또는 가족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영적 자산이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은 삶에서 생활에 뿌리내린 어떠한 실천적 기초가 되었고 신앙심에서 비롯한 삶에 대한 순응적 자세와 긍정적인 태도는 참여자들이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을 당해도 인내하며 버티어내게 한 힘이 되었다.

감사드려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거... 전적으로 의지했죠. 아플 때도 의지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병도 이길 수가 있었고, 자식들을 감싸고 끝까지 이혼도 안 하고.. (참여자 1).

2) 벗어나고픈 가난

본 연구 대상자들이 살아온 시대적 배경은 6.25 전쟁으로 초토화된 한국 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까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기간이었다. '새마을 운동'이란 전국민적 생활 신념이 정신적 지주로 자리 잡고 있는 세대의 특성이 그들 세대에 나타난 삶의 힘이었다. 가난했던 현실은 생존 자체에 대한 위협이었다. 가난을 벗어나고픈 몸부림,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은 참여자들에게 생존 본능을 일깨워 주었고, 또한 주어진 삶을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은 성공에 대한 집념, 배움에 대한 열망, 돈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났다.

● 생존을 위한 몸부림

참여자들은 가난에 굴복하여 결코 좌절하지 않았고 삶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원초적인 생명력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무엇이든지 나쁜 것 빼고는 무엇이든지 해서 살아야 한다. 욕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해야 한다. '아이고 저 아줌마 무서워서 외상 못해, 못 떼어먹어...'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무섭게 기를 썼어요.

● 성공을 향한 집념

참여자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꿈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 단계적으로 꿈을 성취해 나갈 때 그것은 행복을 느끼게 하는 원천이 되었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내가 꿈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라고 그래요... 내가 꿈을 향해서 실천하고 있다 그래요... 평생 내 꿈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살아보려고... 자기가 주어진 삶속에서 열심히 하려했죠.. (참여자 1)

● 돈에 대한 집착

한국이 산업화되어가는 과도기에 어려운 삶을 살아온 참여자들에게는 돈은 어쩌면 가장 강력한 삶의 도구였다. 가족을 위해, 삶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다.

나는 내가 노력만 해서 돈이 나온다고 하면 목숨 걸고 살았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어. 진짜로... 지금도 열심히 살아나는. 저축도 하고.(참여자 5)

3) 대물림되는 유산

세월을 겪으면서 성숙되고 다져진 노인들의 삶의 가치와 태도는 그들의 부모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고 그들 삶의 이정표와 방향이 되었다. 자녀들을 잘 키워낸 자부심과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일이 또한 노인들이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

● 삶의 태도를 물려줌

고도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낸 시대를 성공적으로 살아낸 노인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로움과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대신할 수 없다는 책임의식이 내면에 배어 있는 공통된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은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강한 자립심, 적극성, 고

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강인한 의지를 갖게 하였다.

지금 젊은 애들한테나 우리 애들한테 항상 그래요. 멀리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두고 생각하라고 그래요. 아들이 말하길 '엄마 제가 생활해보니까 엄마하고 살 때 삶의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참여자 11)

● 자녀들의 인정

엄마의 위대한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똑바로 살게 된 거 같아요... 정말이지 네... 잘 해요... 이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자녀들이 '엄마 이제 그만하셔도 되요' 그러네요.(참여자 8)

4) 결혼에 매인 몸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에 마음의 한을 갖고 살아야 하는 모습이 파악되었으나 그 속에서 참여자들은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냈다. 남편에 대한 헌신적인 아내의 역할은 이 시대의 여성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부분으로 내재되어 있었다.

● 가정을 지키는 몸

결혼한 다음날부터 맞았어요... 남편이 나를 안 봐주려고 하더라고요 이혼을 안해주려고...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살았지 50년을... 남편을 뒷바라지 해서 공무원을 만들었어요... 내가 일으켜 세웠어요... (참여자 1)

● 자식만을 위한 몸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한 일념은 참여자들이 지금까지 삶을 열심히 살아오게 한 주된 원동력이었다. 참여자들의 눈은 늘 자식을 향해있다. 자식만은 나처럼 가난하게 살게 두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악착같이 삶을 살아내었다.

애들 넷을 앉혀놓고 어떻게 너희를 먹여 살리니 어떻게 너희를 가르치니...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아 가지고 오로지 벌어서 굶기지 않고 가르치겠다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참여자 9)

5) 늙어서도 필요한 몸

장년기에는 자녀를 위한 헌신적 돌봄, 노년기에는 조부모로서 손주를 위한 애정으로 연결되면서 이 또한 살아있음과 아직도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제공하는 힘이 되었다.

손주를 6개월 키워서 보냈어요. 또 6년 동안 큰 딸 네.. 내가 살아있어서 내 삶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가 도움이 된다 하면 내 인생에 대한 자존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꼭 있어야 할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참여자 14)

6) 나이 들어도 당당한 몸

참여자들은 한 단계씩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때마다 성취감과 도약에 대한 기쁨을 경험하였다. 그 내면에는 자신 스스로에 대해 귀한 존재라는 자존감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다양한 삶의 굴곡에서도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 자기 몫을 해냄

치열하게 살아낸 과거의 삶의 경험이 현재 지금 내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과거에 체험된 삶의 경험들은 현재에도 고스란히 내 삶 속에서 빛을 발한다. 참여자들의 나이 든 몸은 내 삶의 장애물이 아니다.

● 스스로를 가꾸어감

삶의 다양한 굴곡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본인이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는 정신, 환경 속에 파묻혀 자신을 잊지 않겠다는 생각들은 참여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내가 귀해서 항상 귀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나의 가치를 항상 높게 두었다. 내 모습을 그렇게 만들고 살았다. 내 모습을 위해 살았다. 흐트러지지 않게 그림이 좋게 살았다. 계속 계획을 세워서 살았다.(참여자 2)

● 인생의 폭을 넓혀감

좋은 기분, 삶에 대한 만족,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문화생활은 노인의 삶에 품격을 더한다. 자기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기쁨이 삶에 힘을 더한다.

소식지를 보고 내가 체크를 해서 이런 게 아주 좋아 보인다, 참여해보고 싶다 해서 전화해보고 그랬어요. 생각한 것이랑 와서 듣고 한 것이랑 새롭게 더 내가 잘 살았구나 하는 확신도 좀 들고 믿음도... (참여자 10)

● 창조적 생명력

예술을 통해 자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참여자들의 여생에 끊임없이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

내가 그런 거예요 유화.. 툴립. 인수봉. 한 10년 됐어요. 우리 성당에서 해요. 봉사하는 화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질이 나에게 있는 건가?.. (참여자 6)

7) 허물어지고 싶지 않은 몸

죽음의 그림자는 항상 가까이 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과거의 삶에 몰두해서 절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남은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고 싶고, 자립적으로 살고 싶으며, 가능한 아름답게 활기 있게 살고 싶은 열망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의미를 갖게 한다.

● 짐이 되고 싶지 않음

적어도 추하게는 죽고 싶지가 않다... 반듯하게 누워서라도 죽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문고리를 잡고 아픔을 참으면서 운동하고 생활운동을 무지 많이 했어요... 애들한테 짐이 안 되길 바라는 거예요. (참여자 12)

● 적극적인 삶의 에너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극복을 해야 사니까. 오는 걸 막아내고 한 단계 도약하고 하면서 우리는 어려운 데서 사니까 성취감을 많이 느꼈지. 내가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잘 살아왔나? 고백할 수 있게.(참여자 14)

8) 내 인생의 열매 - 자식

인생의 열매는 자식이다. 자식을 만나는 기쁨으로 또한 주를 기다린다. 고난을 감내하면서 인내 속에 키워낸 자식들은 더 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애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 우리 딸도 그랬고. 아버지가 못한 거 애들이 다 해줬어. 정말 우리 작은 아들은 아침 9시 10분 전이면 꼭 전화해. 매일. 그렇게 효자고 며느리들도 잘하고... 참고 살은 게 제일이다.(참여자 15)

9) 성숙된 진짜 사랑 - 배우자

결혼 후 삶을 살아오면서 참여자들에게 배우자의 존재는 인생의 시련에 맞서 희로애락을 같이 경험하면서,

미운 정, 고운 정을 나눈 관계이었다. 이혼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남편의 성장과정을 이해하면서 남편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게 되고, 하루하루같이 산다는 것이 눈만 뜨면 행복하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는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남편이죠... 재생 불량성 빈혈인데 이제 환자예요. 근데 나는 하루하루같이 산다는 것이 눈만 뜨면 행복해요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우리는 항상 손을 잡고 자요. 나이 들수록 부부가 된 믿음. (참여자 8)

10) 변함없는 우애-형제

만이로서 부모를 대신하여 돌보았던 형제자매들이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며 다져진 형제간의 도타운 사랑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동을 보람되게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를 제공해주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참여자들에게 든든한 배경과 위로가 되어준다.

가장 큰 원동력은 십 남매나 되는데 십 남매나 되니까 형제가 우애가 있다는 것. 완전히 외롭고 혼자가 됐어도 가족의 힘으로 가족의 원동력으로 이 나이때까지...그래도 행복한 사람이 지 않았을까 생각. (참여자 16)

11) 확장된 가족 -며느리, 손주

참여자들은 내 삶의 의미를 주는 것들을 소중하게 지켜나간다. 더 이상 어른으로서 그저 대접받기만을 희망하는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내 방식만을 주장하지 않고, 내 영역을 찾고 내 영향력을 나눈다.

우리 손자들이... 저는 문자를 많이 보내요 그리고 저는 문자 마지막에 꼭 "사랑한다" 이런 멘트를 많이 보내고... 하트를 많이 보내고... 며느리들한테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한테도 불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며느리들한테 서운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나쁜 점은 내 가슴에다 묻고. (참여자 7)

12) 속내를 나누는 오래된 친구

친구와의 도타운 정, 소소하지만 정겹고 소탈한 정을 나누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노년기에 들어 친구의 존재는 배우자나 가족의 사별을 경험한 대상자들

에게는 노년기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또 다른 힘이 되고 있다.

● 정겹고 소탈한 정

아픈 걸 어루만져 .. 보듬어 주는 사람은 이렇게 오래된 친구여, 속 내놓고도 뭐가 힘들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친구... 애들 다 키워놓고 나서는 친구들 힘으로 살고 그러죠. (참여자 15)

● 슬픔에서 일으켜줌

아들을 폐암으로 잃었어요. 내가 너무너무 절망적이었는데 따라죽고 싶었는데, 친구가 날 일으켜 세우면서 "너까지 죽을 거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시 친구들 만나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얻고, (참여자 18)

13) 처해진 상황에 만족함

처해진 상황에 만족하고, 분수에 맞게 살아가려는 마음 자세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관계에서 평화를 추구하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게 하였다. 이러한 긍정성과 삶에 대한 낙천성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삶을 희망과 용기로 살아올 수 있었다.

●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노년기에 부여된 삶의 의미는 의연하게, 보람되게, 깨끗하게, 욕심부리지 않고 사람답게 살다가 돌아가는 것이다. 참여자들에게는 어떤 존재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의미가 있다.

아무것도 없고 다 내려놓고 그냥 살다가 가는 날까지, 그냥 그런 생각 하면서 살아요. 욕심도 내지 말고. 아무리 누가 잘 하고 다녀도 잘 해놓고 살아도 내 것이 아니니까 탐내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참여자 12)

● 긍정과 감사

참여자들은 끊임없이 내 존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를 찾는다. 육체적 차원에서는 늙어도 존재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고 긍정과 감사로 필요를 충족시키며 살아간다.

그래도 이만하면 감사하지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담고 살았어요. 만족하고 감사하면 좋을 거 같아요.... 못 이룬 꿈은 한도 끝도 없고 우리가 이를 수도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그건 일종의 교만이죠.. (참여자 4)

14) 넓어진 인생의 폭

나눌 때 느끼는 기쁨은 참여자들에게 또 다른 삶의 힘을 얻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노쇠한 몸과 힘으로 적게나마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어 한다.

• 남겨진 삶의 가치를 깨달음

늘어버린 몸도 가치 있게 쓰고 싶고, 내 몸의 남은 힘도 필요한 곳에 보탬이 되고 싶다. 노년의 생은 표피적으로 노화된 삶의 진행자가 아닌 자유로운 선택을 가진 존재로서의 삶이다.

저는 신체를 사후에 기증을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물질적으로 넉넉해서 남에게 도와준 것 없고 그렇다고 큰 재주가 있어서 남에게 베풀 것도 없고 하니까.. 죽어서 쓸모없는 사체라도 필요한곳에. (참여자 9)

• 타인의 삶을 열어줌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참여자들은 생존을 위해 억척같이 돈을 벌었지만 물질에 끌려가지 않고 벗어나 지혜롭게 나누는 기쁨을 안다. 자신만을 생각하던 이기심에서 벗어나 타인의 아픔까지 헤아릴 줄 아는 이 타심으로 다듬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 아이들의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 자식을 먹이는 걸 나누어 먹였지. 내가 고아원 원장 같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 먹이고 재우고 수없는 나날들을 보냈지. 힘은 들었지만 후회하는 건 없어.. (참여자 5).

• 확장된 세계

참여자들의 삶의 경험은 자신을 넘어 타인에게로 향하는 관계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살아서 존재하는 생명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소중함과 충만함을 인식하게 된다. 자신이 아프고 남편이 병에 걸리면서 연장된 삶 그 자체에 대한 감사하며 이웃에게로 타자에게로 함께 살아가며 삶의 지평을 넓혀간다.

우리 양반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 아픈 사람이 우리 집 찜질방에 일주일 와있었어요. 암 환자인데 아니 밥해 먹기가 힘들대요. 친구들이고 누구고 아프면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그냥 와서 있으라고 해. 나는 그냥 국 하고 밥만 조금 해주면 되지만 자기네들은 힘들잖아요. (참여자 16)

2. 노인들의 삶의 원동력 체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

노인들은 6.25 등 한국 근대사의 격변기를 지나며 강인한 생명력으로 삶을 살아왔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신체적 노화를 겪게 되고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노쇠하고 의존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그들 나름의 태도로 담담하고 당당하게 생을 살아가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지탱하게 해주는 원동력은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며, 자신을 귀한 존재로 여기면서,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의 정신적, 영적 유산을 바탕으로 잘 살아보려는 꿈을 향해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려는 삶의 신념과 긍정적인 태도였다.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힘을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으로 보았고 이 현상에 대한 노인들의 체험을 네 가지 실존 체인 체험된 몸, 체험된 공간, 체험된 시간, 체험된 타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여자들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들을 돌보면서 다양한 상황을 겪게되고 세월이 흘러가며 세상을 대하는 시각도 달라졌다. 참여자들은 가난과 생존에 대한 막막함과 삶의 무게에 짓눌려 앞날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왔다. 그러나 삶의 원동력이 되어준 가족의 존재와 성공의 기적을 바라는 희망으로 자신을 담금질하며 일으켜 세웠고 그것은 지치지 않고 긴 세월 동안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자녀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오게 한 힘이 되어 주었다고 해석되었다. 긴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일가족들을 돌보았던 신체는 너무 힘들었다. 이제 노쇠함의 무게가 더해져 몸의 구석구석이 망가져 소리를 내고 건강의 적신호가 나타나지만 집안일을 하고 텃밭을 가꾸며 몸을 놀리지 않는다.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허물어져가는 몸을 부여잡고 늙어서도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자부심으로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나를 가꾸어 간다. 회생과 헌신으로 키워냈건만 나이가 들어서도 향한 마음을 멈출 수 없었던 자식은 인생의 열매가 되고 또 자신의 열매들을 나에게 내어준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참아왔던 남편은 회로애락을 공유한 여생의 친구가 되었고 같은 이별과 생의 고통을 이겨낸 이들은 친구의 이름으로 서로를 보듬는다. 이제는 가족에게서 벗어나 여

전한 당당함으로 자신을 가꾸며 타인을 인식하게 되고, 긍정과 감사의 마음으로 사회적 관계를 향해 움직였던 양팔을 조심스레 펴본다. 여생에 미련을 가지며 평온한 죽음만을 바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나를 담금질하며 살아 오게 한 원동력과 삶의 가치를 깨닫고 사회 속에서 참여와 봉사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여전히 힘 있게 감당하고 있으며, 이런 내적 성숙을 통해 처해진 상황에 만족하며 긍정과 감사로 나누고 함께하는 노년의 삶을 이루어 내고 있다.

IV. 논 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를 통하여 살펴본 노인들의 삶의 원동력 체험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체험하는 삶의 원동력 의미에 대한 본질적 주제들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어머니의 사랑과 가족의 영적 유산인 신앙생활, 그리고 가난을 벗어나고자 애썼던 생존을 위한 몸부림, 성공을 향한 집념, 돈에 대한 집착이었고, 이는 본 연구자들의 체험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고난의 세월 동안 성숙된 노인들의 삶의 태도는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대물림 되고, 노인들의 삶에 대한 자녀들의 인정과 감사는 그동안 잘 살아왔음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여생을 살아갈 힘이 되어준다. Poulter (2008)의 말처럼 어머니와 아버지는 우리 인생을 쓰러지지 않게 해주는 두 받침대이며 정서적 유산이며 통찰력의 원천이 된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유산은 시간, 문화, 가족사를 통해 전수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별히 어머니-자녀 관계는 자신을 형성하는데 관여한 지난 세대와 수많은 선대로부터 받은 직접적 산물이 되며 깊이 내재된 행동, 돌봄 유형, 양육 태도 그리고 감정적 유대 등은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준다. 가족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신앙의 힘 또한 삶의 바탕이었고 인생의 굽이굽이를 지켜주었다. 종교성은 인간에게 있어 만족감,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갖게 하며, 인간의 안녕과 성장을 돕고, 인간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Park, Park, & Jung, 2009). 또한 본 연구 참여자들의 체험된 시간 속에서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은 잘 살아보고 싶다는 꿈,

성공을 향한 집념과 돈에 대한 집착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이루어 낸 소박한 꿈, 풍족하지는 않으나 자신을 지킬만한 경제력은 노년에 자녀와 자손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힘이 되어 준다. Soung, Kim과 Kim (2012)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주변 사람을 대접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 어려움을 겪는 자녀를 도와주고 용돈을 주는 등의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 높은 자존감을 보였다. 이는 노인들이 노년의 삶을 마주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년에 필요한 자원 준비와 관련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체험하는 삶의 원동력 의미에 대한 본질적 주제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고 자식을 길러내며, 나이가 들어서도 필요한 존재이며, 당당히 자기 몫을 해내며, 끝까지 허물어지고 싶지 않은 적극적인 삶의 자세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들과 받는 관계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끊임없이 주는 관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자녀와의 관계는 자유로움의 구속이 되기도 하나 스스로 혹은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의 삶에 얽혀 끝없이 자신을 희생하며 자녀들의 부족함을 메워주려 하였던 Kim 등(2008)의 연구와 달리 나이가 들어도 자녀에게 해줄 것이 있다는 당당함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충실히 부모로, 아내와 남편으로 가족에게만 향하던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 스스로를 가꾸어 가며 사회적 관계 속으로 인생의 폭을 넓혀가고 있었다. Soung 등(2012)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노화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로부터 시작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삶은 노인에게 즐거움과 건강을 추구하게 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노인은 타인 또한 사랑할 줄 알며 인생을 유쾌하게 즐길 줄 안다. 이러한 노년의 힘은 자유로운 정신이 되어 공허에 대한 공포와 노년의 무의미함을 극복하고, 사사로운 일상적인 일에 덜 집착하며, 자신을 정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일에 더 많이 참여하게 한다(Guttman, 2016). 참여자들은 예전과 변함없는 일상의 활동을 통하여 여전히 자신의 존재감을 부여하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고 건강을 위해 생활방식과 습관을 바꾸고 자신을 가꾸며 나태해지지 않으려 애쓰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러 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건강 영향 요인은 일상 수행능력, 건강수준, 신체기능수준, 건강생활습관 등임이 밝혀지고 있다

(Kwon, Yang, & Jang, 2015; Kim & Shim, 2015; Park, Kim, & Kim, 2016). 그러므로 노인들이 노년에 노화를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사는데 불편하지 않는 기술 습득, 꾸준한 운동, 예술 활동 등을 실천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안, 철학적인 인생관 정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체험하는 삶의 원동력 의미에 대한 본질적 주제는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였다. 그 대상이 자식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배우자, 손자, 며느리, 친구 등이 이에 부가되거나 대체되었다. Soung 등 (2012)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자식을 가진 노인세대는 자신의 삶 또한 성공한 삶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되며, 없는 가운데도 자녀교육에 매진했던 것은 이러한 성공에 대한 집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살아온 나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배우자의 인정과 지지는 노년의 삶의 가치를 확인하게 해준다. Choi와 Kim (2002)은 노인들이 배우자와 함께 함을 통해서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자아를 확인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통해 자아를 확인한다고 하였으며 확인된 자아는 지혜롭게 노년을 살아가게 한다. 또한 참여자들에게는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는 친구의 존재가 있다. Lee와 Han (2012)은 연구에서 동년배의 친구는 비슷한 코호트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동질감이 형성될 수 있고, 생애 과정에서 같은 삶의 단계를 지니고 있으며, 유사한 생활방식과 관심사로 서로의 공통된 경험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부모-자녀 관계, 위계 사회의 조직과 유사한 수직적 구조를 가진 관계에서 오는 세대 차이, 단절감, 역할기대 등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노인의 자존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관계는 넓은 의미에서 인간과 타인에 대한 사랑이며 그 사랑은 단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노력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체험하는 삶의 원동력 의미에 대한 본질적 주제들은 처해진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며, 긍정과 감사의 힘을 토대로 남겨진 삶을 가치를 깨닫고, 타인의 삶을 열어주며,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생의

이기심을 줄이고 지나치게 자신에게 몰입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인생에 감사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많은 것을 포기할 줄도 안다. Guttmann (2016)은 노년에 나타나는 장점이 겸손과 자제이며, 노년의 포기는 상실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것을 이해와 기쁨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또한 불필요한 몸과 마음을 정리할 줄 알며, 주변과 타인을 사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참여자들은 과거를 그러한 원동력으로 살아왔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노화라는 불가항력의 삶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감내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얻어진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힘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사랑으로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참여자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존중받지 못한 삶에 대한 회한, 그래서 차오르는 응어리로 분노를 표출해가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기존의 노인의 모습(Han, Kim, Hyun, & Kim, 2016) 보다는 살아온 힘이 되어준 경험된 힘과 존재 자체의 존귀함을 깨닫고, 자신과 가족과 타인을 위해 참고 견디고, 내 삶을 내어주며, 주어진 삶을 깨끗이 살아나가는 노년의 생의 숭고함과 그 실천의 원천이 되는 힘(원동력)을 엿볼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이 경험하는 삶의 원동력 경험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 Van Manen (1997)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으로 수행된 귀납적 연구이다. 분석 과정을 통하여 22개의 주제 및 14개의 본질적인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본질적 주제는 '과거로부터 이어진 기억', '벗어나고픈 가난', '대물림되는 유산', '결혼에 매인 몸', '늙어서도 필요한 몸', '나이 들어도 당당한 몸', '허물어지고 싶지 않은 몸', '내 인생의 열매', '성숙된 진짜 사랑', '변함없는 우애', '확장된 가족', '속내를 나누는 오래된 친구', '처해진 상황에 만족함', '넓어진 인생의 폭'이다. 본 연구는 노인이 체험한 삶의 원동력이 이들의 삶과 인식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를 찾아 드러내었다는 점과 참여자들이 체념, 공허, 상실로 대변되는 노년의 삶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의 응어리를 구슬을 통해 발산하면서 자기 성찰과 존재 회복의 기회가 되었음에 그 의의를 들 수 있다. 노년은 의미가 없음

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참여자들은 적극적인 사회 활동에 동참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당당한 삶을 원한다. 그러므로 노인 인구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중년부터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처럼 노인들이 경험한 삶의 원동력에 대한 의미는 젊은 세대들에게 현재 노년 세대에 대한 이해와 미리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간호실무 환경에서 노인의 삶을 이해하고 통찰력을 갖게 하므로 다양한 건강증진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노인들의 삶의 강인함과 홀로움, 그리고 노인의 삶 전체를 통하여 체득된 노년의 지혜가 노인을 대하는 보다 긍정적인 사회의 시선을 이끌어 내며, 노인복지의 효과적인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50-60년대 유년시절을 겪어 나온 세대적 특성이 너무 국한되어 기술되어 있어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부분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원동력에 대한 성별 특성을 드러내기에는 제한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간호 연구 및 실무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연령대에 따른 삶의 원동력에 대한 성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간호 현장에서는 노인을 지탱하는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사정하고 그러한 삶의 버팀목을 잃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유사한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개발시켜주는 간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ury, M., & Holme, A. (1991). *A life after ninety*. NY: Chapman and Hall Inc.
- Choi, H. K. (2012). *A study on the Eco-systemic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of elderly women living alone-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eongj University, Cheongj.
- Choi, I. H. (2004). *My mother does not die*. Jeju: YeBaek Media.
- Choi, J. S., & Kim, K. B. (2002). The self-esteem of elderly women.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14(4), 510-520.
- Guttmann, D. (2016). *I want to grow old without a thing*. Paju: Cheonga Publishing House.
- Guba, E. G., & Lincoln, Y. S. (1992).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Reprint ed., Vols. 1-423).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Han, G. H., Lee, J. H., & Kim, J. H. (2004). Korean centenarians and the meaning of "living a long lif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15(3), 121-135.
- Han, J. H., Kim, E. J., Hyun, J. S., & Kim, N. H. (2016). The lived experience of anger in elderly women with aggressive tendenc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8(2), 95-105.
<https://doi.org/10.17079/jkgn.2016.18.2.95>
- Kim, C. M., Ko, M. H., Kim, M. J., Kim, J. H., Kim, H. J., Moon J. H., Baek, K. S., Son, H. M., Oh, S. E., Lee, Y. A., & Choi, J. S. (2008). The life elderly women living alone.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38(5), 739-747.
<https://doi.org/10.4040/jkan.2008.38.5.739>
- Kim, Y. O., & Shim, M. S. (2015). Cognitive functions,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9(2), 219-230.
<http://dx.doi.org/10.5932/JKPHN.2015.29.2.219>
- Korean Basic Dictionary (2019) : driving force. Retrieved April, 2019, from <https://krdict.korean.go.kr/dicSearch/searc>

- h:basedic=NkdCq4zeC7WI4iZrG5ktSBNn0bnwDbJHdb64qQYLVM3DXr8vE7xU!-1319586587?nationCode=&nationGubun=&ParaWordNo=&mainSearchWord=%EC%9B%90%EB%8F%99%EB%A0%A5
- Kwon, M. S., Yang, S. O., & Jang, J. H. (2015). Health related lifestyles, self-efficacy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by the types of hypertension management in community health pos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9(3), 565-581.
<http://dx.doi.org/10.5932/JKPHN.2015.29.3.565>
- Lee, J. H., & Han, G. H. (2012). Korean pre-elders' friendship experience and happines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2(2), 170-205.
<https://doi.org/10.15709/hswr.2012.32.2.170>
- Park, E. S., & Park, J. A. (2013). Research trends and implications in meaning in life.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29(1), 267-299.
<https://doi.org/10.16935/ejss.2013.29..008>
- Park, J. M., Kim, J. S., & Kim, M. W. (2016). A path analysis on factors - depression, level of health status, physical function, and regular exercise - Influencing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sex in community dwelling elderly.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0(2), 337-348.
<http://dx.doi.org/10.5932/JKPHN.2016.30.2.337>
- Park, J. S., Park, E. M., & Jung, T. Y. (2009). The influence of religiosity on general trust, self-efficacy, and life-satisfa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History of Religions*, 55, 159-190.
<https://doi.org/10.21457/kars.55.200906.159>
- Park, Y. R. (2005). Understanding on the positive life of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Parse, R. R., Coyne, A. B., & Smith, M. J. (1985). *Nursing research: Qualitative methods*. Brady.
- Poulter, S. B. (2008). The Mother Factor: How Your Mother's Emotional Legacy Impacts Your Life. Prometheus Books.
- Rhee, K. O., & Lee, H. S. (2004). Developing a group program of self-integration for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4, 37-52.
- Ryu, E. K. (2011). Life experience of the korean oldest peop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 Shin, K. L. (2000). *Experiential research - Methodology of human science research in hermeneutical phenomenology*. Seoul: Hyunmoonsa.
- Soung, O. K., Kim, Y. K., & Kim, K. H. (2012). The meaning of self-esteem in the elderly. *Qualitative Research*, 13(2), 158-167.
- Statistics Korea. (2019). *Future Population Estimates: 2017 ~ 2067*. Retrieved April 22, 2019,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0
- Van Manen, M. (2nd ed.). (1997).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New York: Routledge.

Study of the Hermeneutical Phenomenon regarding the Meaning of the Driving Force of Life Experienced by the Elderly

Han, SukJung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hamyook University)

Kang, KyungAh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hamyook University)

Lim, YoungSook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driving force of life experienced by the elderly and the realistic structure of their experience. **Methods:** The research question was “What is the essential meaning of the driving force experienced by the elderly?”. Data were collected from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between March, 2017 and May, 2017 and analyzed using Van Manen’s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to identify the essential themes of their experience. **Results:** Through the analysis process, 22 themes and 14 essential themes were derived. The 14 essential themes of the driving force of the life of elderly were as follows: ‘Memories from the past’, ‘Poverty to escape’, ‘Hand down family’s heritage’, ‘A body bound by marriage’, ‘A body necessary for old age’, ‘A dignified body even if they grow older’, ‘A body that does not want to fall’, ‘A fruit of my life’, ‘Mature real love’, ‘Unchanging fraternity’, ‘Extended family’, ‘An old friend with whom share my heart’, ‘Satisfied with the situation’, and ‘Expanding the breadth of life’. **Conclusion:** Nursing programs that assess the driving force of life supporting the elderly and supports the driving force of such a life should be developed.

Key words : Aged, Life, Power(psychology)